

#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학대유형 세분화 개정안 의견서

## 1 제안 이유

상해의 흔적이 없는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입법예고안은 규정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제한된 내용만을 담고 있어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우려됩니다.

이에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학대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해의 흔적 없는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학대행위를 세분화하고,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구를 삭제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를 요구합니다.

## 2 주요내용

가. 농식품부령으로 입법예고 된 3가지 유형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정(시행규칙 제4조제4항 관련)

○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세분화하고 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430호) 수정

- 고의로 (장기간)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고의로 (장기간)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고의로’라는 문구를 규칙에 넣게 될 경우 행위자가 수사 기관 등에서 행위의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처벌이 불가하여 규정 형해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의로’라는 문구 대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보다 적은 ‘장기간’을 문구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임.

-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동물에게 음식, 물 등을 강제로 먹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 음식이나 물이 아닌 것을 강제로 먹이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의 공백이 생기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 있음.

#### 나.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세분화(시행규칙 제4조제4항 관련)

- 상해의 경우에도 처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학대 행위 유형을 세분화 하여 시행규칙에 규정할 필요성 있음. 이에 대하여 2018년 3월 시행예정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던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개정하였는데, 행위 자체가 학대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결과로 상해가 초래 되지 않을 때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코자 위와 같이 개정하였으므로, 이에 동물보호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규칙에서 상해의 방식을 유형화하는 경우에도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만을 초래한 경우(상흔이 남지 않은 경우)도 처벌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하여 유형화하여 규정 신설할 필요성 있음.

- 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아 운행함으로써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흥기 등으로 타격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르래 스프링 격발장치 화살 장치 등을 부착하여 개조된 새총 및 컴파운드 보우, 활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살아있는 동물에게 겨냥하여 사용함으로써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 간에 싸움을 하게 하여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동물을 장시간 가두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을 높은 곳에서 추락시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